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 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

## 제 13 장

###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6:6~18

2016. 07. 02(토)





##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

### 제13장. 심음과 거둠 (갈 6:6 ~ 18)

마지막 경고 (갈 6:6~10)

마지막 초대 (갈 6:11~18)

**복음으로 살라!**

교사와 교훈

심은대로 거둔다

잘 뿌림

#### 교사와 학생의 관계

- ▶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눔.**
  -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는 자” (카테쿠크메노스: 교리 교육을 받은 자라는 뜻)
  -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유익함. (목회자에게 넉넉히...)
  - 코이노네오: “교제를 갖다”의 뜻
  - 선생이 받은 영적인 선물과 학생이 받은 재정적인 선물을 서로 나눔.
  - 일종의 교환임. (“소비자”가 되면 안 됨.)

#### 바울의 경고

- ▶ **스스로 속이지 말라.**
  -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호소함.
  - 거짓교사들은 자신의 영예와 인정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 뿐임.
  -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 (부적절한 거짓교사를 물리치라고 함)

#### 농사의 과정 “파종과 추수” (인과응보의 법칙)

- 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 죄는 언제나 파멸을 낳게 됨.
- ②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 수확량을 좌우하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음. (언젠가는 싹이 남)
- ▶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림.**
  - 죄의 본성에 지면 양적인 멸망과 파괴가 기다리고 있음. (모든 것 붕괴)

#### 바울의 경고

- ▶ **육체를 위하여 심음. (노예/파멸)**
  -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행위로) 자신의 의를 획득하려 하는 우리 마음의 일부가 죄된 본성임.
- ▶ **경고는 삼엄하지만 약속은 놀라움.**
  -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 영생(기쁨)

#### How to? 성령을 위해 심는 자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데서 비롯한 감사한 기쁨으로 순종함. (삶을 사로잡는 우상은 힘을 잃고, 자유로움)
- ▶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함.**
  - 죄인에 경고: 결국에는 드러남.
  -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격려: 열매.
- ▶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심는 것?**
  -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함.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 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임.
  - ② “행한다” = 사랑을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함. (희심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
- ▶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 삶.**
  - 씨앗의 값에 비해 수확이 더 없이 값짐. (보상은 훨씬 큼)
  - 진정한, 성취하는, 영원한 삶.

**더 나아가**

####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이자 권고.

- ▶ **본질에 관한 것:** 기독교는 표면적인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문제 삼는다는 점을 확인 시킴. (거짓 구주 = 인정 받는 것)
- ▶ **궁극적으로 복음은 십자가가 자기 구원의 모든 계락을 저지하기 때문에 꺼림칙함.** (율법주의 저변에 “거짓 구주”가 흐르고 있음)
- ▶ **그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예, 특권, 영광을 얻기 위해 종교를 택하고 있음.** (그들의 사역은 세상의 인정과 외모에 연연함)
- ▶ **구원의 방법을 표면적인 규율과 행위에 둔 종교는 자부심을 부추기고 인기를 몰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음.**

자신의 손으로 (不求)

####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

- ▶ **종교는 우리에게 관한 것을 자랑하도록 몰고 감.**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함.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부동함)
- ▶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구원 받음.** (그리스도를 향한 즐겁고 자랑스러운 확신에 차오르고 삶에 놀라운 전환이 찾아옴.)
- ▶ **가장 중요한 것=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나의 미래&현재를 바꿈 / 거둬냄, 새로운 창조)
- ▶ **복음은 순종의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일어나는 감사에 넘치는 사랑임)

무엇을 자랑하는가?

####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규례로 삼은 사람은

누구나 “평강과 긍휼을 알게 됨.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6:18)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 길,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계속 살아감)
- ▶ **은혜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완성시켜주고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며, 장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의 길임.** - 아멘 -

평강의 삶

**복음으로 살라!**



##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 제 13 장. 심음과 거둠

(갈라디아서 6:6~18)

#### 갈라디아서 6:8~9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 Key Word 📖

복음으로 살라!, 가르침을 받는 자, 풍성한 교제, 나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심음과 거둠, 선을 행함, 성령, 수확, 본질, 십자가에 대한 이해, 자랑,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은혜

마지막 경고(6~10절) + 마지막 초대(11~18절) ] = “복음으로 살라!”

#### ■ 교사와 교훈 ■

##### ▶ 교사와 학생의 관계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선물을 서로 나누는 일)

-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는 자”여야 함.(갈6:6)
- 그리스어 카테쿠메노스[katechoumenos]: 교리 교육을 받는 자라는 뜻.
-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재정적 후원)을 함께하길 바라고 있음.
-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모두 유익함.(목회자에게 넉넉히 주어야함)
- 코이노네오[koinoneo]: “나누다”, “교제를 갖다”의 뜻.
- 신앙 선생이 받는 봉급을 급여로 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교환”임.
-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서로 나누는 것임.(풍성한 교제)
- 기독교의 가르침은 돈을 지불해야 할 봉사가 아님.(“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됨)  
(선생이 받은 영적인 선물 & 학생이 받은 재정적인 선물)을 서로 나누는 것.

##### ▶ 바울의 경고(“스스로 속이지 말라”).

-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6:7)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호소함. →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 거짓교사들에게 속을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거짓교사들은 자신들의 영예와 인정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임.  
(그들은 신자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
- 부적절하고 거짓에 찬 교사들을 물리치라고 함.(바울의 마지막 결정적인 호소)

## ■ 심은 대로 거둔다. ■

### ▶ 농사의 과정 “인과응보의 법칙” 파종과 추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음)

#### 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 토마토씨를 뿌렸는데 옥수수를 거두지는 않음.
- 죄는 기쁨과 생명이 아니라 언제나 파멸을 낳게 됨.

#### ②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 땅에 묻힌 씨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싹이 트게 됨.
- 수확량을 좌우하는 것은 거둠이 아니라 심음임.
- 죄는 언제나 인과응보임. 그 결과를 늦출 수 없음.

### ▶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림.

-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으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흠집이 생김.
- 씨를 대충 뿌리면 수확이 형편없음. (도덕적 영역에도 과정이 있음을 보임)
- 죄의 본성에 지면, 영적인 멸망과 파괴가 기다리고 있음.(죄가 모든 것을 붕괴시킴)

### ▶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6:8)에 대한 바울의 경고.

- 스스로 구주이자 주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획득하려 하는 우리 마음의 일부가 바로 죄 된 본성임.
- 복음을 거절하고 행위로 얻는 의를 정식으로 끌어안는다면, 노예상태와 파멸이 닥칠 것을 경고함.(일관성, 기쁨, 힘이 빠져나감 &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수확)

### ▶ 경고는 삼엄하지만 약속은 놀라움.

-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6:8).
-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인정과 확신 그리고 성취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현재 만끽할 수 있을 것임.(이 기쁨은 죽는다고 끝나지 않음)

## ■ 잘 뿌림 ■

### ▶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을까?(6:8)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데서 비롯한 감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
- 삶을 사로잡는 우상들은 힘을 잃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살 수 있음.

### ▶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함. (6:9)

-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언제나 지체가 있음. (휴면기, 마침내 싹이 틔)
- 죄인들에게 경고: 오랫동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엔 드러나고 말 것임.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격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 → 결국 열매와 유익을 봄.

### ▶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심는 것일까?

-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함.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임.(6:10)



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만남도, 프로그램도, 심지어 회심도 아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

② “행한다”는 말은 사랑을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한다는 뜻임.

- 복음화에 있어서도 회심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함.
-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 전도와 제자화만 해선 안 된다는 말임.
-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함.(물질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것을 가리지 말고...)
-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필요한 어떤 도움이든 우리의 가진 힘으로 베풀어야 함.

▶ “모든 이에게” / “기회 있는 데로” / “믿음의 가정들에게”

-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개인적으로 채워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 됨.
-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6:10) 보여주어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임. →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형제, 자매들임.(4:5)

▶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는 삶”(6:9) (진정한, 성취하는, 영원한 삶)

- 당장은 이런 삶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름.
- 그러나 마치 씨앗의 값에 비해 그 수확이 더없이 값지듯이 그 보상은 훨씬 큼.

① 사람들의 변화한 삶을 봄으로써 직접적이고 깊은 만족을 얻음.(마9:37)

② 가정과 공동체들 나아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얻음.

③ 짐을 져주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남의 짐을 지며, 다른 이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없더라도 더 깊은 의미에서 수확이 있음.
- 성령을 좇아서 뿌린 자들에게는 엄청난 수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묵상을 위한 질문

1. 죄 된 본성으로 씨를 뿌려서 결국 “파멸”을 수확했던 인생의 시기를 떠올려 볼 수 있는가?
2.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정한 환경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둬들이고 있는가?
3.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내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 하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변화를 이루도록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가?

## 더 \* 심음과 거둠

# 나아가

### ■ 자신의 손으로 ■

#### ▶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이자 권고(본질에 관한 것)

- 기독교는 표면적인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문제 삼는다는 점을 확인시킴.
- 복음을 전파하면 인간의 심성에 극심한 찢림이 일어난다고 말함.(5:11~12)
-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복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불쾌한 것이고, 보수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십자가 없이는 “나쁜” 인간들만큼이나 “선한”인간들도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불쾌함.
- 궁극적으로 복음은 십자가가 자기 구원의 모든 계락을 저지하기 때문에 꺼림칙함.
- 거짓 구주 = 인정받는 것.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의 저변에는 이것이 흐르고 있음.
- 그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예, 특권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택했음.
- 그들의 사역은 자기 구원의 한 형태임.(세상의 인정과 외모에 연연함)
-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임, 즉 내면적인 변화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동기로 행동 양식을 취하게 함. (거짓교사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둠)
- 구원의 방법을 표면적인 규율과 행위에 둔 종교는 자부심을 부추기고 인기를 몰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음.

### ■ 무엇을 자랑하는가? ■

#### ▶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랑”할 유일한 것은 십자가뿐임.

- 종교는 우리에게 관한 것을 자랑하도록 몰아감.
-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함.
-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임.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자랑)

#### ▶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면,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6:14).
-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구원 받음.

#### ▶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음을 알면 그리스도를 향한 즐겁고 “자랑스러운” 확신에 차오르고 삶에 놀라운 전환이 찾아옴.
-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신처럼 섬길 이유도 없으므로 세상을 거리낌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함.
- 구원이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임(6:15)

- 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창조 안에서 내게 설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바꾸고(완전한 재창조), 내게 완전히 새로운 자아상과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현재를 바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병행을 이룸)
- 복음은 순종의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일어나는 감사에 넘치는 사랑임. (거듭남, 새로운 창조)

▶복음이 내 자랑거리를 완전히 바꿨음.(바울)

- 복음이 내정체성의 근본을 바꿨음. 세상에 얽매일 것이 없으므로 마침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음.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며, 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이자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음.

■ 평강의 삶 ■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규례”로 삼은 사람은 누구나 “평강과 긍휼”을 알게 됨.

-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함.(6:1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6:18)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 길,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임.
-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계속 살아감.
- 은혜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완성시켜주고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며, 장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의 길임. - 아멘 -

묵상을 위한 질문

1. 14절을 읽으면 감동이 오는가? 나를 어떻게 뒤흔드는가?
2. 복음을 따라 살기에 평안한 내 삶의 영역들은 어디인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기에 평강이 깨진 영역은 어디인가?
3. 갈라디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복음으로 살라!

부 록

## 최근의 토론

- “율법의 행위”(2:16, 3:2, 5, 10)라는 용어를 놓고 최근에 “새로운 관점”이 전개되었음.
- 바울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인종적, 민족적인 배타주의를 반대하고 있음.
- 바울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인종과 계층이 “하나님의 식탁”에 동등하게 앉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임.
- 필자의 결론.
  - 국수주의와 율법주의의 사이를 마치 분리된 두 가지 것인 양 크게 벌려둘 수 없음.
  - 갈라디아서는 그 중심부에 인종적인/민족적인 자부심과 우월감을 문제 삼는 논쟁을 걸고 있음. (율법의 행위에는 이러한 태도가 포함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국수주의는 율법주의의 한 형식임.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도덕적 우월감은 같은 영적인 뿌리)
  -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임.
  -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과 연결시키고 있음.
  - 새로운 관점으로 갈라디아서의 고전적인 이해를 폐기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를 놓고 벌인 논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줌.
  1. 복음이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줌.
    - ▶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대놓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강경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 ▶ 유대주의자들은 훨씬 더 교묘하게 “물론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또 너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받아주시도록 너희가 자라나게 하는 일에 충분하지 않으니, 이제 너희는 모세의 정결법과 문화적인 관습들을 빠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음.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구체적인 규정들을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지킴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함.(3:1~5)
    - ▶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시대와 문화에서 교묘하게 움직였듯이, 우리의 문화와 시대에서도 그럴 것임.
  2. 바울은 신앙적 일치와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점을 또한 깊이 우려 하고 있음.
    - ▶ 갈라디아서의 상당부분이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타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사회적 측면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함.
    - ▶ 복음의 진리는 강의실이나 박사학위를 위한 상아탑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님.
    - ▶ 복음의 진리는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교우들과 직장동료들에게도 근본이 됨.